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음 윤5월 21일) 제18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와 환종환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는 12일~13일 양일간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캐스팅보트 지역인 아프리카, 중남미 주한대사를 초청해 새만금 잼버리 유치 당위성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펼치고 있다.

송 지사,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막바지 총력

아프리카 · 중남미에 지원 요청

아프리카 40 · 중남미 40개국 개최지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 가능성

국내 주재 대사들에게 전북지역 인프라 여건 설명 · 지방정부 지원 약속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주한 아프리카 중남미대사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유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최지 결정 36일을 앞두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아시아 회원 국가들은 26개국인데 비해 폴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회원국은 40개국에 이르러, 아프리카 40개국, 중남미 34개국이 개최지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랍 19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숫자가 다행히 많아 회원국

숫자로 볼 때 개최지 결정 예상 득표는 막강하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남미지역 국가들이 자연스레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된 셈이다. 문제는 아프리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저개발국가로 총회가 개최되는 아제르바이잔까지 항공비 및 참가비 부담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실정인데, 세계연맹에서는 참가비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Code of

Conduct)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중남미도 지구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항공비와 참가비가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송하진 지사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대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정부에서 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단이 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또한, 송 지사는 잼버리 유치에 대한 전라북도의 충분한 인프라 여건을 설명하고 성공개회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 역사상 이제까지 문화 관광 역사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개최됐지만 전라북도 2023 세계잼버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여건을 활용, '스마트 잼버리'란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되면 세계 160여개국에서 젊은 청소년 5만여명이 참가해 약 보름간 새만금지역에 체류하면서 문화교류와 글로벌 체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3면 - 정치문제로 국민희생 없어야
10 · 16면 - 2025 원주시 도약

“전통문화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토록”

민주당 전북도당,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면담
전주 문화특별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요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3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부 도종환 장관집무실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희승 지역위원장(남원임실순창), 하정열 지역위원장(정읍고창), 김생기 정읍시장, 양오봉 전북도당 정책본부장, 임광현 전북도당 전략본부장, 박기훈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 권도운 전북도당 역량강화지원실장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 태권도 국가원 이점 ▲가야문화 유적정비와 관광자원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을 짚으면서 공약이행 성과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김춘진 위원장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북은 40년 동안

광역시가 없어 정부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전북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만의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무주 개최 등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무주 국가원 이점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무주에는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 등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심장부가 무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성지로 거듭날 수 없다"며 무주에 태권도 국가원 이점 필요성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공약 이행 실행안을 만들어 당정청관계자들을 방문, 전북권역 뉘 찾기에 나서고 있다. /김진성 기자

靑 “지방분권TF 출범… 자치발전추진 전까지 운영”

자치발전위, 9월 출범 목표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운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화하고 실현할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사항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진체계는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전이라도 활용방법을 찾아 TF를 출범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TF의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오늘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출범식을 가졌다"며 "(특별법이 개정되면) 9월 말 한 차례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위원회 형태로) 재가동시킬 예정"이라며 "지방자치위원회 재가동에 맞춰 지방분권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토·일 신문 읽는다.

문화예술 명품도시 정읍, 날개를 달다!

연지아트홀

 Yeonji Art Hall

개관식 및 기념공연

개관식 2017. 7. 21(금) 18:30 연지아트홀 (정읍시 중앙로 73)
주최/주관 정읍시

개관 공연

- 7. 21(금) 19:20 아스 오케스트라 협연
- 7. 22(토) 19:00 이미연 피아노 독주회
- 7. 23(일) 19:00 라스 앙상블 연주회
- 7. 26(수) 19:00 창작연극 순정이 블루스
- 7. 27(목) 19:00 시립합창단
- 7. 29(토) 15:00 / 17:00 어린이 뮤지컬 년 특별하나다

• 관람료 : 무료
• 관람예약 - 7. 21(금)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 가능
- 7. 22(토) ~ 7. 29(토) 티켓링크 사전관람예약 www.ticketlink.co.kr (1588-7890)
• 예약기간 : 2017. 7. 13-7. 28 • 문의 :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4)

기획전시 7. 21(금) ~ 29(토) 10:00 공예작품전시